Millennium Seoul Hilton

The Korea Post

www.koreapost.co.kr 종합외교경제신문 – 코리아포스트 코리아포스트 부록 | 2020년 3월 6일 제48호

The Korea Post 코리아포스트 창사35주년
창사 35
구독 및 광고·기사제보 문의
전화 : 02-2298-1740~2 / 팩스 : 02-2298-9506
www.koreapost.co.kr / www.koreapost.com
http://www.koreapost.co.kr/pdf/list.html

71회 '인도공화국의 날' 경축 행사에서 '란가나탄' 인도 대사가 강조

"헌법 제정 후 자유·평등 정신·종교·지역 뛰어넘어 결속력 뿌리내려"

조경희 부회장, 이삼선 기자

"인도 국민이 헌법을 도입하고, 제정하고, 공표한지 71년째를 맞았습니다. 1947년 8월 15일 독립 선언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정표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헌법 제정입니다. 인도 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헌법 제정 및 도입 이후 자유와 평등의 정신, 종교와 지역을 뛰어넘는 시민 간 결속력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이 날을 기념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 말은 지난 1월 31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제 71회 '인도공화국의 날' 경축 행사에서 '수리프리아 란가나탄' 인도 대사가 축사 모두에서 한 말이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부임한 인도의 여성 대사는 이어, "지난 해는 인도와 한국 정부 간의 우애가 한층 더 깊어질 일이 많았던 생산적인 한 해 였습니다. 모디 총리님께서 2월 국빈방한을 하셨으며, 지난 9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열린 인도 주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은 여섯 명의 세계 리더 중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께서도 2019년 9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으며, 2019년 4월에는 방위사업청장님이 인도를 찾으셨습니다"라고 양국간의 활발한 방문 외교실적을 소개 했다.

대사는 이어, "앞으로도 사람, 평화,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담긴 비전 성명의 각 요소를 실현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서 감사하게도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분들께서 온 마음을 다해 협력해주셨습니다.

'란가나탄' 대사는 이어, "상업적, 경제적 관계는 한-인도 양자관계의 핵심 축을 맡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업, 학술기관, 지방정부 간 다양하고 빈번한 교류를 촉진하여 양자 교역과 투자를 부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19년 양자 교역량은 2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 의료기술 등의 부문에서 신규 투자가 창출됐습니다"라고 그 동안 활발했던 양국의 협력관계를 소개 하였다. (별첨 대사 연설문 참조)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각계 가층에서 지도급 하객들이 약 300명 정도 참석을 하였는데, 이중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등이 참석을 하였으며, 언론계에서는 창사 35주년을 맞이하는 종합 국.영문 언론사 '코리아포스트'의 조경희 부회장이 기자와 함께 참석을 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9년 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시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한국을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19년 2월 21일 저녁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친교 만찬을 갖기 전 서울스카이전망대를 찾아 야경을 감상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에서 2번째),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왼쪽에서 3번째), 광주시장 이용섭(4번째), 광주부시장 장제성(5번째)이 71주년 인도공화국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타에서 개최던 인도 국경일 경축연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와 코리아포스트 미디어의 조경희 부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국 국경일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또 한사람 있다. 이나라의 한국명예영사. 이날 행사에는 정덕민 주 부산 인도 명예총영사가 참석을 하였고 축사도 하였다.

디에스마인 대표이기도 한 정명예총영사는 부산 지역 대학과 인도 대학간 학생 교류 확대, 양국 문화의 상호 이해증진 등 한·인도간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부산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이자 교육인 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부산·경남지역에는 약 1400명의 인도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인도의 공주(허왕후)가 가락국으로 시집왔다는 이야기가 전래되는 등 이 지역은 인도와 상당한 정서적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 인도국민은 약 7800명이다.

행사는, 곧 이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축사가 이어 졌다. 이시장은 축사에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입니다"라고 전제한 다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문화의 유산을 가졌고, 지금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인도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천년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인도와 우리나라는 1973년 수교를 맺은 데 이어,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기반으로 한 '3P플러스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더욱 친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라고 양국 정상간의 돈독한 관계를 소개 하기도 사였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나라이다. 인구 13.7억명('19년) 중 절반이 27세 미만, 생산가능인구 8.5억명 이며, 경제규모(GDP)는 세계 7위('18년 IMF),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2019년 IMF 기준으로 7.2% 이다. 또한 IMF는 향후 5년 내 인도가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인도의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도에 특사를 파견,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17. 11월에는 인도와 아세안을 아우른 신남방정책이 발표되어 인도는 대한민국의 외교 다변화의 핵심국가로 부상했다.

2018. 7월에는 문 대통령 내외분이, 11월에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국빈방문하였고, 이어서 2019년 2월에는 모디 총리가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인도의 모디 총리 역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대기업을 포함해 7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란가나탄' 인도대사 환영사 요지:

주한인도대사관을 대표하여 71번째 인도 공화국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역사 깊은 이 아름다운 도시 광주광역시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듯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밤 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민주주의라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노력에 걸맞는 장소라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성공적인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정이 있는 주가 끝나지 않았기에 경자년 새해 행복하게 보내시라는 인사도 같이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도 국민이 헌법을 도입하고, 제정하고, 공표한지 71년째를 맞았습니다. 1947년 8월 15일 독립 선언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정표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헌법 제정입니다. 인도 공화국의 탄생을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왼쪽에서 9번째)가 지난 1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 71회 인도 국경일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만찬, 자리 앞 유리컵에 담긴 붉은 장미 한송이는 채식주의자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옆의 한국 청년은 모디총리와의 인연으로 주한인도명예총영사로 임명된 정덕민.

8면에 계속

■ 발행인 칼럼

지령 35년의 영문3, 국문2개, 코리아포스트 미디어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발행인 겸 회장 이경식

1980년대에 영문일간지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서 문화부장직을 맡았다. 그 이전에는 'The Spring of Thoughts'란 제목으로 같은 신문에 매주 한 편씩 칼럼을 썼다.

영문언론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그 후 1973년 한국일보·코리아타임즈 공동주최의 '한국문학번역상'을 받은 때부터였다. 소설가 오영수씨의 "내일의 삽화"를 번역해서 당시까지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내국인이 혼자서 그 상을 받았다. 그 외에는 전부 외국인이 받았고, 간혹 그 중에는 외국인-내국인 공역의 경우도 있기는 했다.

몇 년 전 이 난에서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외국인은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꺼려한다."

코리아포스트 미디어는 35년 전 영문월간 코리아포스트(The Korea Post)로 부터 시작을 하였다. 그렇다. 상대를 알기 전까지는 선뜻 관계를 갖기를 꺼려한다. 그게 어찌 외국인에게만 국한된 일일까? 우리도 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근 반세기간,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그리고 코리아포스트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그들과 우리를 잇는 일을 열심히 하였고, 또 현재도 하고 있다.

코리아포스트는 지난 35년간 주로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코리아포스트 미디어의 영문쪽 매체들, 즉 영문월간 코리아포스트와 인터넷판(www.koreapost.com)은 주로 주한외국대사와 주외 외국 겸임대사들을 상대로 하였는데, 현재 국내에는 117개국 주재 대사관이 있고, 이에 추가해서 이와 거의 같은 수의 주외 겸임 대사관 등 모두 230개의 대사관이 있다. 이들이 실시간 영문인터넷과 영문월간 코리아포스트의 주요 활동 대상이었고 무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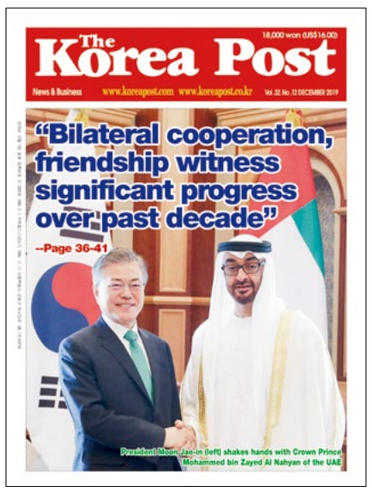
외교계는 물론 주한 각국 기업 및 각계각층의 주요 기관 및 기관, 지금은 대한민국과 세계 220여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들의 튼튼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코리아포스트인가?

35년전 창간 당시에는 국문판이 없어서 외국의 현 상황,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 환경과 수입 패턴 등을, 국문으로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현재는 영문 3개, 국문 2개의 매체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영어에 "We are at your service"라는 말이 있다. 의역하면 "저희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란 뜻이 된다.

코리아포스트의 5개 매체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코리아포스트 영문 월간잡지

코리아포스트 국문 월간신문